【 2015.01.28(수) 강원일보 】

정보통신공사협회 도회장에 김동호씨 단독 출마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도회는 28일 원주 웨딩타운에서 정기총회를 연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임 도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도회장에는 강릉 명성이앤지 김동호 대표(사진)가 단독 출마했다. 하위윤기자

【 2015.01.28(수) 강원도민일보 】

조직위 사무소 평창이전 내년 연기

당초 올 연말서 내년 상반기로
경기장 비용분담 등 갈등 원인

올해 연말 평창으로 이전하려던 2018 평창겨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사무실 이전계획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조직위는 서울과 평창으로 이원화돼 있는 사무실을 올 연말까지 평창에 사무공간을 신축해 통합 사무실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상반기로 연기했다고 27일 밝혔다.

통합사무실 운영이 연기된 것은 지난해 조직위원장 교체이후 계속된 올림픽 경기장 건립 주체 및 비용분담 문제 등을 둘러싼 정부-조직위-강원도 갈등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조직위는 지난해 말까지 평창에 사무소를 신축해 서울과 평창의 사무소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립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2015년 말로 한차례 연기했었다.

조직위는 이르면 내년 4월말쯤 입주를 목표로 건축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오는 5월까지 사무소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한 후 6월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공사할 계획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공법을 바꾸면 공사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가량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축되는 조직위 사무소는 대관령면 횡계리 감자종자진흥원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만816㎡(3272평) 규모다.

여기에는 사무공간을 비롯해 종합상황실(MOC), 기술운영센타(TOC), 안전대책본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기념품 판매점 등이 들어선다. 통합 사무실이 운영되면 국제와 홍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서울사무소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과 업무가 평창으로 이전된다.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